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산업 수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김정환* · 안태건**

An Analysis on the Trade Competition of Major Industrie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Korea-Central America FTA

Kim, Jeong-Hwan · Ahn, Tae-Kun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mpetitiveness of major export industries following the FTA between Korea and five Central American countries.

Findings revealed that Korea mainly exports industrial products such as ships, automobiles and parts, steel, and electronic devices, and it imports raw materials and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coffee and copper, indicating a complementary trade structure. Similarly,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alysis revealed that Korea specialized in exporting industrial products such as ships, automobiles, steel, and machinery, and in importing primary products such as copper and coffee. Products such as ships, steel, and machinery, which are major export items to Central America, are expected to further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due to tariff cu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medicines and medical supplies could increase in futur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export strategies by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major export industries in the Central American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Central American FTA.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entry into South America as a bridgehead in the Central American market.

Key words: Trade Competition, Korea-Central America FTA, MS, TII, TSI

▷ 논문접수: 2020. 11. 30. ▷ 심사완료: 2020. 12. 18. ▷ 게재확정: 2020. 12. 28.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주저자, jhkim80@cu.ac.kr

**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tkahn@pknu.ac.kr

I. 서론

2019년 12월 전 세계는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 되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인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상황 또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브렉시트(Brexit),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강조되면서 탈세계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등 한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들이 상존해 있다.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2018년 2월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중미 국가들(온두라스, 니카라과)과는 10월 1일부로 FTA가 발효되었으며, 나머지 국가들 중 국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까지 현재 발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 속에 한-중미 FTA 발효는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미 FTA가 발효된 시점에 우리나라의 對중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한-중미 FTA 현황을 개관하고, 3장에서는 한국과 중미 국가 간 무역구조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후 제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중미시장을 교두보로 하여 남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시장 다변화와 주력 산업의 진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한-중미 FTA

1. 선행연구

FTA체결에 따른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하나 중미 FTA관련 선행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중미지역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백훈(2019)은 연산가능일 평균형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미국가와의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경쟁 국가들의 FTA추진으로 나타날 한국 수출의 무역역압효과(trade depression effect)를 활용하여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중미국가와 FTA체결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중미 FTA 체결 시, 한국의 의류·식품 수출이 감소하지만, 한국의 대중미 의류·식품수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의류·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일본-중미 FTA는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수송기기, 전기·전자, 및 플라스틱·고무 산업에서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서 한국

이 누렸던 FTA 선점효과가 다소 사라질 것이라 하였다.

박지문(2019)은 서류 없는 무역으로서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 간 전자원산지증명서(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C/O) 교환현황을 분석하였다. 중남미지역의 국가들 중에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의 경우 e-C/O 교환을 양자 간 형태로 인접 국가들과 활발히 교환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한-중미 FTA에 의거하여 e-C/O 교환을 제안할 시 협정문 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양식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e-C/O 교환을 위한 기본적인 형식은 갖추어진 상태라 볼 수 있고, e-C/O 교환 플랫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여부와 전자 무역서류교환에 있어 국제표준을 따르는지 여부 및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분도, 심재희(2017)는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시에카(Secretariat for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SIECA)시장의 무역경쟁력을 수출편향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에카와의 무역에서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공산품을 수출하고 1차산품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 무역구조를 보이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이 수출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안태건, 김성룡(2015)은 FTA 발효가 조선 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조선 산업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에 하나로 FTA 효과를 선정하여 실증분석 실시하였으며, FTA 발효 효과 그 자체는 조선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경한, 박주동(2016)은 대한민국과 단일국가(칠레, 인도, 싱가포르, 미국, 페루)간 체결한 FTA가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벌크화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패널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FTA 체결이 컨테이너 하역 중심 항만인 부산항의 벌크 물동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속적인 물동량 창출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은, 안승범(2018)은 한·중간 FTA 체결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수출입 물동량과 한·중간 카페리 노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하였다.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카페리선사 및 정기선사를 이용하는 화주 포워더를 대상으로 선사 선택요인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시장점유율분석, 무역집중도, 무역특화지수 등 경쟁력 측정방법들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2. 한-중미 FTA

한국과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은 2015년 9월 협상 개시 이래 2년 2개월 만인 2016년 11월 16일 한·중미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하였고, 지난 2018년 2월 21일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이 정식 서명을 하였다.

FTA 협상에 참여했던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이미 자국 내 비준절차를 완료하

고 이를 우리측에 통보하여 이들 국가와는 2019년 10월 1일, 11월 1일부터 FTA 발효되었고,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는 국내절차를 완료 후 우리측에 통보여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현재 자국내에서 비준절차를 진행 중인 파나마와는 추후 발효 예정이며,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회원국인 파테말라는 한-중미 FTA 발효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입 예정이다.

표 1. 한-중미 FTA 발효 과정

날짜	내용
2010.10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파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 공동연구 개시
2015.06.18	합상개시 선언
2015.09.21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18.02.21	정식서명(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2019.08.02	대한민국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
2019.08.06	중미측에국내절차완료 통보
2019.10.01	발효(온두라스)
2019.11.01	발효(니카라과)
2020.01.01	발효(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발효일미정	국내비준절차 진행 중(파나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미 FTA협상결과 중미 5개국 평균 95.4% 품목의 관세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품목 수 기준으로 코스타리카의 관세 자유화 수준은 95.2%, 파나마 95.3%, 엘살바도르 95.1%, 온두라스 95.6%, 니카라과 95.9%이며, 발효 직후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의 비율은 코스타리카의 경우 68.2%, 파나마 60.6%, 엘살바도르 52.1%, 온두라스 64.2%, 니카라과 53.5%이며, 코스타리카와는 화장품, 알로에음료, 의료기기 등 주요 소비재 즉시철폐 및 형강, 타이어, 가전제품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엘살바도르와는 축전지, 기어박스 등 일부 자동차 부품 즉시철폐 및 타이어, 전선, 가구류, 가전제품 등은 10년내 철폐된다.

온두라스와는 서스펜션, 클러치 등 일부 자동차 부품 즉시철폐 및 형강, 타이어, 가전제품 등이 10년내 철폐되며, 니카라과와는 알로에음료, 의료기기 등 주요 소비재 즉시 철폐 및 형강, 타이어 등이 10년내 철폐, 파나마와는 철강제품, 알로에음료, 배전반 등에 대해 즉시철폐 및 에어컨, 타이어,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철강, 철강제품, 전기기기, 원자로·보일러 기계류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섬유, 화장품, 의약품, 식음료 등 생활용품 품목들의 관세도 대거 철폐되어, 주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확보되었으며,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 등의 수단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표 2. 한국의 중미 주력품목 관세 양허 현황

구분	개방 품목
코스타리카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자동차부품(즉시), 축전지(즉시), 냉연·열연강판(즉시), 타이어(10년),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10년), 주요 섬유(즉시)소비재: 주요 의류(즉시), 알로에 음료(즉시), 화장품(즉시), 의료기기(즉시)
엘살바도르	주력품목: 자동차(9~10년 비선형),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서스펜션 등)(즉시), 타이어(3년), 가전제품(냉장고 등) (10년), 아연도강판·도금강판(즉시) 소비재: 참치 통조림(5년), 의약품(5~10년), 커피 조제품(10년), 조명기기(10년)
온두라스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8년), 자동차부품·타이어(즉시~5년), 철강(주강, 형강, 아연도강판 등)(5~10년),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10년) 소비재: 주요 의류(즉시), 접시세척기(즉시), 콘택트렌즈(5년)
니카라과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자동차부품(5~7년), 타이어(5~10년), 가전제품(냉장고, TV, 에어컨 등)(7년), 도금강판(10년) 소비재: 알로에 음료(즉시), 조명기기(즉시), 화장품(5~10년)
파나마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자동차부품(즉시~7년), 전선(즉시~10년), 주요 섬유(즉시), 타이어(10년), 가전제품(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등)(즉시~10년) 소비재: 주요 의류(즉시), 알로에 음료(즉시), 인쇄용지(즉시), 의료기기(5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한-중미 FTA 상품 양허표

(단위: 개수, %)

양허유형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	3,635	52.1	4,756	68.18	4,481	64.24	3,732	53.50	5,351	60.59
3년철폐	21	0.30	15	0.22			15	0.22	47	0.53
5년철폐	715	10.25	464	6.65	649	9.30	761	10.91	1,403	15.89
7년철폐	50	0.72	6	0.09			129	1.85	27	0.31
8년 철폐					40	0.57				
9년철폐	7	0.10								
10년철폐	1,746	25.04	1,052	15.08	1,191	17.08	1,612	23.11	1,201	13.60
10년철폐 (누적)	65	0.93								
12년철폐	55	0.79	3	0.04			19	0.27	8	0.099
15년철폐	338	4.85	329	4.72	302	4.33	373	5.35	372	4.21
16년철폐			12	0.17	4	0.06	50	0.72	8	0.09
19년철폐			1	0.01			2	0.03		
양허제외	342	4.90	338	4.85	308	4.62	283	4.06	415	4.70
양허계	6,632	95.10	6,638	95.15	6,667	95.58	6,693	95.94	8,417	95.30
전체	6,974	100	6,976	100	6,975	100	6,976	100	8,832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양허 제외 품목 수는 코스타리카가 338개, 파나마가 415개, 엘살바도르가 342개, 온두라스가 308개, 니카라과가 283개이다.

제조업 품목 중 관세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로 코스타리카가 98.4%, 파나마가 98.0%, 엘살바도르가 96.2%, 온두라스가 97.9%, 니카라과가 98.8%로 나타났다.

표 4. 한-중미 FTA 제조업 품목 양허표

(단위: 개수, %)

양허유형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	3212	57.2	4317	76.9	4053	72.2	3313	59.0	4825	67.6
3년철폐	11	0.2	5	0.1			2		36	0.5
5년철폐	610	10.9	351	6.3	508	9.1	650	11.6	992	13.9
7년철폐	45	0.8					118	2.1	26	0.4
8년 철폐					40	0.7				
9년철폐	7	0.1								
10년철폐	1088	19.4	647	11.5	673	12.0	1129	20.1	953	13.3
10년철폐 (누적)	65	1.2								
12년철폐	52	0.9					10	0.2	8	0.1
15년철폐	307	5.5	202	3.6	217	3.9	286	5.1	153	2.1
16년철폐					4	0.1	39	0.7	5	0.1
양허계	5397	96.2	5522	98.4	5495	97.9	5547	98.8	6698	98.0
철폐제외	215	3.8	90	1.6	117	2.1	66	1.2	143	2.0
제조업 품목계	5612	100	5612	100	5612	100	5613	100	7141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II. 한-중미 교역 현황

1. 중미 5개국 개관

중미 5개국의 인구는 3,562만 명이며, 면적은 3,901만 ha로 대한민국의 4배정도이다. 경제규모는 5개국 GDP가 1,930억 달러로 파나마와 코스타리카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평균 7,328 달러로 소득수준은 낮은편이며, 경제성장률은 평균 2%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편차가 크므로 국가간 경제수준 격차는 크다. 중미 지역은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중산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중미 교역 현황

〈표 6〉의 2019년 한국의 對중미 교역은 수출 21.9억 달러, 수입 4억 달러로, 약 17.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중미지역으로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5년간 수출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對중미 수출은 중미 국가들의 수입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파나마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입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로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파나마는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로 선박을 제외하면 對파나마 수출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코스타리카는 승용차, 전자기기 등 비중이 높은

표 5. 중미 5개국 개관(2019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미 5개국
인구(명)	648만	509만	990만	662만	753만	3,562만
경제성장률(%)	2.38	2.08	2.65	-3.88	3.01	1.25
GDP(달러)	270억	617억	250억	125억	668억	1,930억
1인당 GDP(달러)	4,187	12,238	2,574	1,912	15,731	7,328
면적(ha)	210만	511만	1,124만	1,303만	753만	3,901만

자료: IMF.

표 6. 한-중미 교역 추이

	2015		2016		2017		2018		2109	
	수출	수입								
합계	2,870	623	2,031	544	2,202	353	2,525	453	2,194	434
니카라과	149	13	128	12	106	11	98	17	70	20
엘살바도르	129	14	128	13	160	20	166	24	149	39
온두라스	117	55	117	47	126	42	118	52	125	63
코스타리카	245	150	217	133	168	139	135	207	119	225
파나마	2,230	391	1,441	339	1,642	141	2,008	153	1,731	87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품목의 수출이 주춤하여, 전반적인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엘살바도르는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니카라과는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미간 교역은 HS 품목군을 기준으로 중분류인 2단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한국은 중미 국가로 선박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의 공산품을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선박(HS 89)이 14억 달러로 전체의 67%로 가장 규모가 크며, 차량 및 부품(HS 87), 철강(HS 72), 전기기기(HS 85), 기계류(HS 84), 편직물(HS 60), 고무(HS 40), 플라스틱(HS 39)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경우, 파나마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품목들은 중미 국가들에 고르게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국의 對중미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중미 5개국 주요 수출품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89_선박과 수상구조물	1,792	1,094	2,137	1,752	1,460	7,335
87_철도 또는 궤도용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92	463	303	215	204	1,677
72_철강	88	66	101	126	118	499
85_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12	79	117	91	69	468
84_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93	74	138	77	68	450
60_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65	55	33	39	25	217
40_고무와 그 제품	39	31	46	44	36	196
39_플라스틱 및 그 제품	44	32	38	42	36	192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표 8. 한국의 對중미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중미 5개국 주요 수입품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89_선박과 수상구조물	344	309	120	218	153	1,144
85_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2	61	58	40	40	212
90_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5	42	51	57	63	238
09_커피, 차, 마태, 향신료	41	38	43	45	45	212
72_철강	26	21	13	13	15	88
74_동과 그 제품	12	11	13	13	27	76
61_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류와 그 부품	5	7	10	14	21	57
39_플라스틱 및 그 제품	44	32	38	42	36	192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한국은 중미 국가로부터 선박, 기계류, 농수산물, 광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선박이 1억 달러로 전체 35%로 가장 규모가 크며, 전자기기, 광학기기(HS 90), 커피(09), 철강, 동(HS 74), 메리야스(HS 61)의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미간 교역의 특성은 선박과 전기기기의 경우 수출, 수입 모두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나머지 품목들은 한국은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1차산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 상호 보완인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국가들 모두 무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주요 산업 수출경쟁력 분석

1. 한국의 중미 5개국 시장점유율

한국 상품이 중미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살펴보았다. 시장점유율은 한 국가의 상품이 교역 상대국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다면 상품의 경쟁력이 우수하고 상대국 시장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그러나 일국의 상품이 교역상대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의 정도,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의 경쟁력 비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추세 파악에는 의미가 있다.

$$MS_{ijt} = \frac{X_{ijt}}{IM_{jt}}$$

MS_{ijt} : t시점에서 한국(i)의 중미국가(j) 시장점유율
 X_{ijt} : t시점에서 한국(i)의 중미국가(j)에 대한 수출액
 IM_{jt} : t시점에서 중미국가(j)의 총 수입액

시장점유율은 대체적으로 1~2% 이하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니카라과는 2015년 2.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0.3%를 기록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는 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파나마는 15% 정도로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표 9. 한국 상품의 중미 시장점유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니카라과	0.0254	0.0217	0.0174	0.0194	0.0080
엘살바도르	0.0124	0.0132	0.0152	0.0136	0.0123
온두라스	0.0124	0.0131	0.0131	0.0131	0.0131
코스타리카	0.0170	0.0141	0.0106	0.0120	0.0072
파나마	0.1838	0.1232	0.1290	0.1517	0.1353
합계	0.0549	0.0394	0.0401	0.0484	0.0355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중미 5개국에 대한 무역집중도

한국과 중미 국가의 상품교역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집중도를 활용하였다. 무역집중도는 상대국과의 교역 수준이 전 세계가 그 상대국과 교역하는 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는 지를 보여준다. 전체 수출입 규모에서부터 상호 교역액을 추정하며, 이를 실제 교역액과 비교하여 양국간 교역의 긴밀도와 상호보완정도를 판단하고자 만들어 졌다(Yamazawa, 1970). 한국이 중미 국가에 수출하는 비중이 한국 총 수출의 5% 수준이고, 전 세계에서 중미 국가로 수출된 비중이 전 세계 수출의 10% 수준인 경우, 한국의 중미 국가에 대한 무역집중도는 0.5가 된다. 무역 집중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한국의 상대국 교역은 전 세계에서 그 상

대국에 수출된 것에 비해 결합도가 높은 것이며, 무역집중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결합도가 낮은 것이다(정재화, 2012).

$$TH_{ijt} = \frac{(X_{ij}/JX_i)_t}{IX_{jt}/IJJ_t}$$

TH_{ijt} : t시점에서 한국(i)의 중미국가(j)에 대한 무역집중도

$(X_{ij})_t$: t시점에서 한국(i)의 중미국가(j)에 대한 수출액

$(JX)_i$: t시점에서 한국(i)의 전체 교역국(j)에 대한 총 수출액

IX_{jt} : t시점에서 전체국가(I)의 중미국가(j)에 대한 수출액
(j국 총수입)

IJJ_t : t시점에서 전체국가(I)의 전체교역국(j)에 대한 수출액(세계 총수입)

한국과 중미 국가 간 교역이 전체 수출입규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무역집중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고, 상호간 교역이 매우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긴밀도가 높다는 것은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국가들 간 교역량 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파나마는 높은 무역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파나마의 對한국 수입이 전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정도보다 많다는 것이

다. 한국의 파나마 교역 비중이 크다는 것은 양국 간 교역에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머지 4개 국가에서는 무역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카라과의 경우 2015년 0.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0.2로 나타났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모두 0.5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중미 국가중에서도 파나마와의 교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향후 중미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한국의 중미 국가에 대한 무역집중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니카라과	0.8120	0.7084	0.5395	0.6286	0.2784
엘살바도르	0.3963	0.4303	0.4702	0.4393	0.4300
온두라스	0.3970	0.4284	0.4048	0.3671	0.3968
코스타리카	0.5420	0.4601	0.3267	0.3883	0.2511
파나마	5.8753	4.0138	3.9947	4.9135	4.7391
합계	1,7549	1,2839	1,2417	1,5668	1,2447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11. 한국과 중미 국가의 무역특화도

	2015	2016	2017	2018	2019
89_선박과 수상구조물	0.6779	0.5594	0.8227	0.7789	0.8101
87_철도 또는 궤도용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998	0.999	0.996	0.991	0.987
72_철강	0.5470	0.5540	0.7832	0.8046	0.7881
85_전기기와 그 부분품	0.1560	0.1300	0.3447	0.6712	0.2807
84_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0.7338	0.9203	0.9714	0.9477	0.9736
74_물과 그 제품	-0.9852	-0.9599	-0.9802	-0.9741	-0.9943
60_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0.9987	0.9992	0.9991	0.9994	0.9968
61_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외류와 그 부품	-0.4293	-0.6964	-0.7030	-0.8186	-0.9102
40_고무와 그 제품	0.9982	0.9917	0.9994	0.9996	1
39_플라스틱 및 그 제품	0.9551	0.9463	0.9535	0.9491	0.9389
09_커피, 마테, 차	-1	-1	-1	-0.9999	-1
90_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및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4246	-0.6492	-0.4455	-0.7536	-0.7932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3. 한국의 중미 5개국에 대한 무역특화도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는 특정 산업(상품)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특정 시장에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하여 특정 상품 수출입의 상대적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수출과 수입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김희철, 2013).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상대국의 품목별 교역에서 한국의 수출과 수입 중 어느 쪽에 특화되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무역특화도의 값이 1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 0이면 무역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TSI(k)_{ijt} = \frac{[X(k)_{ijt} - M(k)_{ijt}]}{[X(k)_{ijt} + M(k)_{ijt}]}$$

$TSI(k)_{ijt}$: t시점에서 k품목군의 한국(i)의 중미 국가(j)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X(k)_{ijt}$: t시점에서 한국(i)의 중미 국가(j)에 대한 k품목군의 수출액

$M(k)_{ijt}$: t시점에서 한국(i)의 중미 국가(j)에 대한 k품목군의 수출액

무역특화도는 3장에서 기술한 주요 수출입 품목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무역특화도 1에 가까운 한국의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 품목군으로는 선박(HS 89), 자동차(HS 87), 철강(HS 72), 보일러 및 기계류(HS 84), 메리야스 편물(60), 고무(40), 플라스틱(39)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동차가 0.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계류 0.90, 메리야스 편물 0.99, 고무 0.99, 선박 0.72, 철강 0.69의 순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선박과 자동차의 경쟁력이 중미 국가에서도 강하게 반영되어 수출과 수입을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역특화도 -1에 가까운 한국의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 품목군으로는 동(HS 74),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HS 61), 커피, 마테, 차(HS 09), 광학기기(HS 90)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값을 살펴보면 커피가 -1로 완전 수입특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0.97,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 -0.71, 광학기기 -0.61의 순이다. 농산물, 광물과 같은 1차 상품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미 국가들간 교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비

표 12. 한국과 중미 국가의 TSI 동태적 변화

	2015-2017	2018-2019
89_선박과 수상구조물	0.6867	0.7945
87_철도 또는 궤도용이외의 차량 및 그 부품품과 부속품	0.9977	0.9890
72_철강	0.6281	0.7964
85_전기기기와 그 부품품	0.2102	0.4760
84_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품품	0.8752	0.9607
74_동과 그 제품	-0.9751	-0.9842
60_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0.9990	0.9981
61_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의류와 그 부품	-0.6096	-0.8644
40_고무와 그 제품	0.9964	0.9998
39_플라스틱 및 그 제품	0.9516	0.9440
09_커피, 마테, 차	-1.0000	-1.0000
90_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류용기및이들의 부품품과 부속품	-0.5064	-0.7734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슷하여 특화되지 않은 상품으로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이 있다.

무역특화지수의 통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FTA정식 서명 전인 2015년~2017년과 2018년~2019년의 평균 TSI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 품목 중 선박, 철강, 전기기기, 기계류, 고무와 같은 품목이 수출특화 제품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의 경우 0.5이하 이긴 하나 수출성고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동차, 메리야스편물, 플라스틱은 수출특화 제품에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 광학기기는 수입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통한 분석 결과 한국의 중미 국가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5% 수준으로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파나마의 경우 15%로 높게 나타났다. 무역집중도 역시 파나마를 제외하고는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FTA를 통해 중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 메리야스편물, 고무, 플라스틱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 커피, 광학기기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적인 무역특화도 분석 결과 선박, 철강, 전기기기, 기계류, 고무는 수출특화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자동차, 메리야스편물, 플라스틱은 수출특화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수입특화 제품들은 그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미 FTA로 한국은 수입액 기준 98%~100%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중미 5개국은 93%~9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달성하게 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아시아 내 경쟁기업들에 비해 유리한 환경에서 중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미 FTA는 중미 5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포괄적으로 체결한 최초의 FTA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만큼 경쟁국 대비 품질경쟁력을 갖춘 우리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對중미 주요 수출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미시장에서 수입수요가 많지만 관세장벽으로 인해 對중미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류, 플라스틱 제품 등 주요 공산품이

표 13. TSI 동태적 변화에 따른 경쟁력 분석

분류	경제적 의미	품목
경쟁력 강화	0(TSI(15-17)(TSI(18-19) 수출특화제품으로 경쟁력 강화	HS 89 HS 72 HS 85 HS 84 HS 40
	TSI(15-17)(0(TSI(18-19)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전환	-
	TSI(15-17)(TSI(18-19)(0 수입특화품목으로 수입특화정도 약화	-
경쟁력 약화	0(TSI(18-19)(TSI(15-17)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약화	HS 87 HS 60 HS 39
	TSI(18-19)(0(TSI(15-17)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전환	-
	TSI(18-19)(TSI(15-17)(0 수입특화가심화	HS 74 HS 61 HS 90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중미 간 교역의 특성은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며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환경이 불확실성의 증대로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양한 FTA를 통한 상호 의존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기존 시장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철(2013), 한국 수출산업의 대칠레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한·칠레 FTA 체결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20(5), 265-28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 한-중미 FTA와 우리 기업 진출기회.
- 박성은·안승범(2018),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도권향만 카페리선사의 발전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4(1), 111-132.
- 박지문(2019), 한·중미 FTA에 의거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상호교환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42권 2호, 295-310.
- 송백훈(2019), 한국-중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중남미연구, 38(4), 1-21.
- 안태건·김성룡 (2017), 한국과 중동 지역 간 상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구조 연구, 통상정보연구, 19(2), 47-64.
- 안태건·김성룡(2015),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1(3), 187-201.
- 이경한·박주동(2016), 대한민국 FTA체결에 따른 부산항 벌크물동량 영향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2(3), 83-94.
- 정분도·심재희(2017), 주요 수출제품의 대 SIECA 경쟁력 분석, 국제상학, 32(2), 147-164.
- 정재화(2012).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FTA 효과 분석. 통상정보연구, 14(1), 141-170.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8), 한·중미 FTA체결 현황과 대중미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선별 및 FTA효과 추계.
- 한국무역협회(2019), 한-중미 FTA발효와 FTA를 활용한 수출 유망품목.
- Grubel, H. G. & Lloyd, P. J.(1975),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London, Basingstoke.
- Yamazawa, I.(1970), Intensity Analysis of World Trade Flow,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10(2), 61-90.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산업 수출경쟁력 분석에 대한 연구

김정환 · 안태건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의 공산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커피 등 1차산품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수출경쟁력, 한-중미 FTA, 상품교역,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